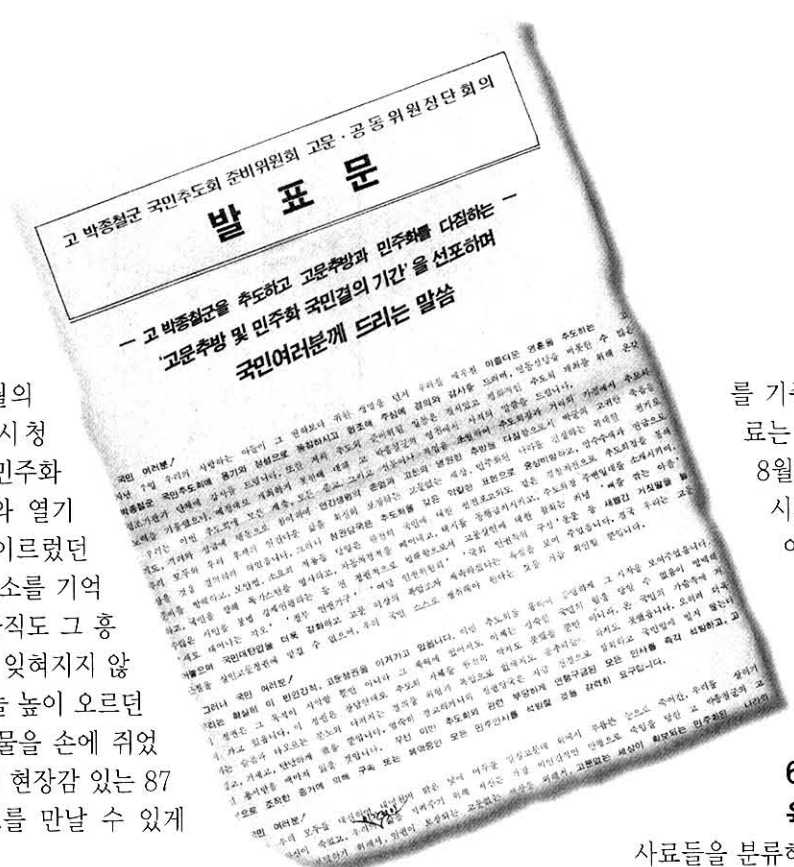


# 87년 6월항쟁을 사료로 만나다

이창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1987년 6월의 명동성당과 시청 앞,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당시, 그 장소를 기억하는 이들은 아직도 그 흥분의 뜨거움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 높이 오르던 전단지과 유인물을 손에 쥐었던 이들은 이제 현장감 있는 87년 6월의 사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6·3한일회담반대운동의 핵심 주역 중의 한 분으로도 잘 알려진 김도현 선생이 87년 6월항쟁의 숨결이 살아 있는 사료

를 기증했다. 기증된 사료는 1987년 2월부터 8월까지 숨가빔던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육필원고를 비롯한 각종 성명서 등이다.

### 6월항쟁 관련 육필원고

사료들을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87년 2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와 관련된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 국민평화대행진과 관련된 육필원고와 성명서, 국민추도회를 위한 집결지,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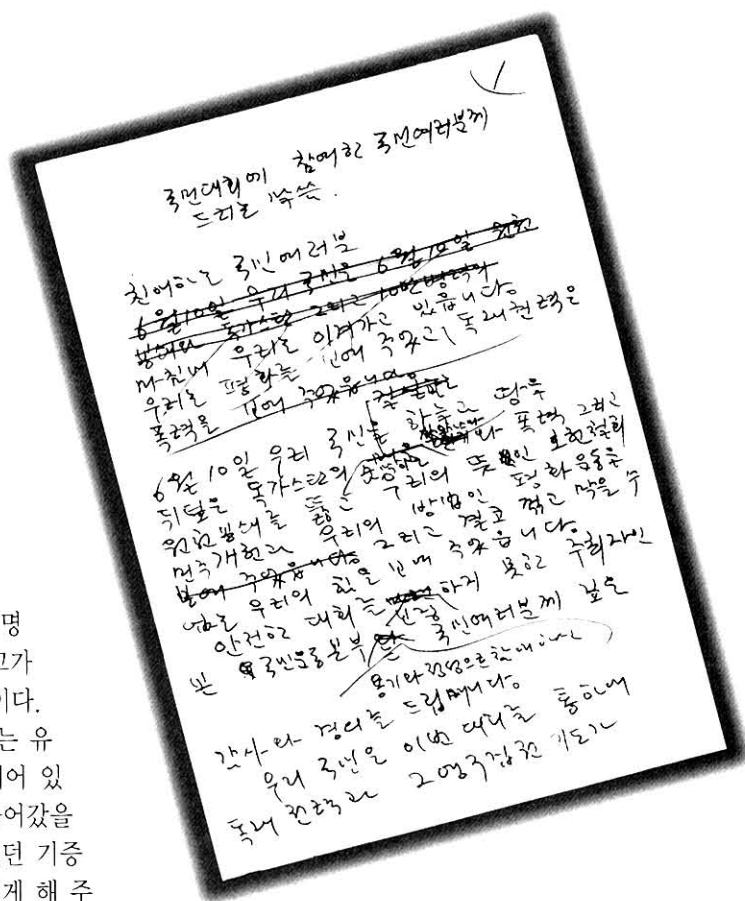
계획서 등으로 이 사료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2월의 투쟁 열기를 이어 받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결성되고 본격적인 6월항쟁이 돌입될 때의 자료, 세 번째로 이한열 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규탄국민대회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대우조선 노동자였던 이석규 열사의 민주노동자장과 관련된 자료이다.

### 꼼꼼한 역사 인식

이번 사료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성명서, 유인물 등의 근간이 된 육필 원고와 인쇄된 성명서와 함께 들어왔다는 점이다. 특히 6·10국민대회에 참여를 호소하는 유인물의 초안은 거의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쉽게 휴지통에 들어갔을 법한 것인데,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기증자의 꼼꼼함과 역사 의식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어떻게 이런 육필 원고가 잘 보관되어 있었을까?

이는 당시 김도현 선생의 역할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김도현 선생은 87년 당시의 자신의 역할을 "정치권의 입장에서 정치권과 재야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겸허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87년 정국에서 나온 각종 성명서 등의 글을 거의 도맡아서 썼다고 한다.

기증받은 그의 육필원고로는 '고 박종철군 국



## 6·10국민대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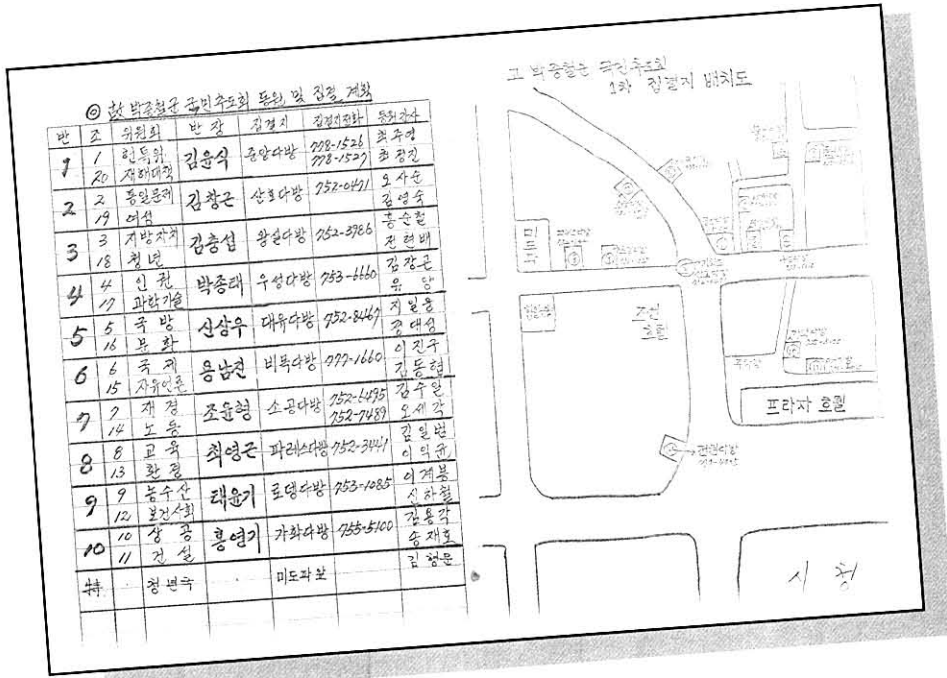
참여를 호소하는

유인물의 초안은

거의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쉽게 휴지통에 들어갔을 법한데



재야인사, 다방에서  
집결하는 지도 그려

특히 박종철 열사의 국민 추도회와 관련한 집결지 배치도 등을 보면, 재야인사들의 집결지가 서울 중심지 부근의 각 다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전국적인 시위 장소 등이 포함된 집결 계획서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보건대,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민추도회 준비위원회를 발기하면서, 준비위원회의 '우리의 다짐', 준비위원회 고문이며 민주협 공동의장인 김대중, 김영삼 양인의 이름으로 나온 '사랑하는 박종철군이어',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참가 요령' 등이 있다.

6월항쟁 관련으로는 '국민대회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민족해방 마흔두 돌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본부를 발기하면서', '민주화의 문턱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말씀' 등이 있다.

그리고 87년 7월의 '고 이한열 열사 추도 및 살인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87년 8월의 '민주노동자 고 이석규 열사 민주노동자장에 즈음하여 1천만 노동자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등이 있다.

대한 열망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고, 그럼으로써 더욱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월항쟁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이 같은 밑받침이 있었기에 6월의 열기가 그대로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넥타이부대'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군부 쿠데타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후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 참여정부의 시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6월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화의 광장에 나섰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A 영문판 『전태일평전』 Single Spar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한국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전태일평전』의 영역판을 발간합니다. 이는 『전태일평전』의 의미를 '세계화' 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전태일평전 영문판 A Single Spark 영문판 필자: 고소, 박영민,사, 김재, 장순영, 김태우, 김민정

\*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